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oom sends tanker scrapping to lowest level in 20 years

선박 브로커 SSY에 따르면, 탱커 폐선량이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올해 COVID-19로 인해 신조선박의 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도됨. 지난해 30척의 선박이 거래됐으나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14척의 선박만이 거래되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Opec+ output hike set to revive spot activity for tankers from August

Opec 및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수요 회복을 기대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보도됨. 이번 주 화요일~수요일에 열리는 technical meeting에서 Opec+ 국가들은 8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일 200만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생산량 증가는 탱커 시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Mitsubishi in long-term pact to sell LNG to China

일본의 Mitsubishi Corporation이 중국 현지 가스업체 Guangdong Energy Group과 LNG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중국 광동지역에 대한 장기간 가스 판매 계약으로 연간 280,000톤의 LNG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Upstream)

Nisshin Shipping takes sizeable loss on resale of LNG carrier newbuilding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일본 Nisshin Shipping의 174,000CBM급 LNG선이 1.6억달러에 리세일 됐다고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삼성중공업이 2019년 3월 1.91억달러에 건조계약을 체결한 선박이라고 보도됨. Nisshin Shipping은 LNG선 시장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선박 인도 전에 매각을 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코팅 탱커 인도량 18년 만에 최저

Braemar ACM 집계에 따르면 금년도 탱커 인도량은 2015년 이후 최저가 될 전망이며 그 중 코팅 탱커 인도량은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수주잔고가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신조선의 납기가 연장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A-' 현대일렉트릭, 수요예측 미달…750억 중 80억만 채워

신용등급 'A-'인 현대일렉트릭이 7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했으나 80억원만 채웠다고 보도됨. 최근 회사채 시장에서 'A'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점이 현대일렉트릭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됨. (연합인포맥스)